



‘우리에게 한아가가 태어났고..’
이사야 9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iskc.org@gmail.com

주임신부 : Joseph Juracek,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효주 (룻정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제1독서 이사 9,1-6 제2독서 티토 2,11-14 복음 루카 2,1-14



(후렴)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 나셨 다.

<성가> 입당:99 예물준비:101 영성체:112 파견:성가대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 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송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주님 성탄 대축일 낮 미사

제1독서 이사 52,7-10 제2독서 히브 1,1-6 복음 요한 1,1-18



(후렴) 우리 하느님의 구-원 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보았 네.

<성가> 입당:107 예물준비:102 영성체:110 파견: 성가대

미사봉헌 12월25일 낮미사

생미사

맨하탄 한인 공동체 신자들
이브라운, 박수진크리스티나, 박수진줄리아
이규완안토니오, 이은경헬렌 성가정위해
이홍규요한, 이미숙안나 가정위해
대녀들의 성가정위해
손영소 스테파노 영명축일
이영애레지나, 이지연안나레지나, 이지훈아녜스

봉헌

익명
양미숙마리아
양미숙마리아
양미숙마리아
양미숙마리아
손명희
익명

그분이 기다리다



가장 낮은 곳에



아기 예수님 곁에 머무는 묵상

작고 소박한 **구유**에 모셔진 아기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 목동들, 동방박사, 가축들...
2천 년 전으로 돌아가 한 인물 한 인물 바라보는 것은 귀한 묵상 기도가 될 것입니다.

2024년 성탄, 아래 구유속 인물 중에서
나는 특히 누구를 닮고 싶은지 한가지 선택해 보세요~

1. 별

베들레헴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가리키는 별! 누구나 멀리서 우리를 보고 그분을 찾게 되지요. 나는 주님을 가리키는 별이 될 수 있나요? 나는 나를 드러내기보다 그분을 빛나게 해드려 더 기뻐요.



2. 목동

누구보다 먼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영광에 감사드려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목동이지만 구세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어 이제 더 부러울 게 없어요. 저에게 주어진 일에 온 열정을 쏟으려고 합니다.

3. 성모 마리아

저는 마음속에 매일의 삶을 간직하며 서서히 그 뜻을 찾아 갑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의 의미도 한평생 가슴에 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며 “예”라고 응답하는 삶을 희망합니다.



4. 요셉

제 머리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고 그 다음엔 거부하고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꿈에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묵묵히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 곁에 있는 것이 제 몫임을 깨달았습니다.

5. 천사

우리들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나팔 소리로 세상에 이 기쁜 소식을 외칩니다. 노래하며 알리는 이 기쁜 일이 우리의 소중한 몫입니다. 하느님이 주신 독특한 달란트를 그분 일에 다 쏟으렵니다.



6. 구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동물들을 위한 작은 구유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제 안에 이 귀한 아기 예수님을 모시게 되다니요? 너무나 갑작스러워 아직도 몸이 떨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담았기에 가장 행복한 구유가 되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늘 깨끗한 마음, 사랑 가득한 마음 간직할게요.



7. 짚

저는 동물들의 음식이 되거나 마굿간 바닥에 깔려 짓밟히는 짚이 싫었습니다. 어느 날 빛에 싸인 그분을 제 위에 모시면서 제 마음은 희망으로 모시면서 제 마음은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짚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혹시라도 저의 날카로운 짚 한 올이 아기 예수님을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걱정이예요.

8. 양

평화스럽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을 보면 사람들은 참 좋아하지요? 그러나 저희들은 한 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목자가 와서 일으켜주면 겨우 일어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9. 소

소의 순진한 눈망울을 본 적 있나요? 저희들의 눈은 지금 아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있는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몫이지요. 믿음은 참으로 순수한 것입니다.



10. 나귀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나귀는 겸손과 봉사를 상징하는 동물이고, 주로 가난한 이들과 가까운 동물로 묘사되어요. 예수님은 전 생을 통하여 겸손의 본을 보여 주셨지요.

11. 동방 박사

별을 따라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분을 뵈기 전엔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아기 예수님을 뵈고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삶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었지요. 꾸준히 찾으면 어느 날 발견하게 되겠지요?

